

權氏列傳

투쟁하는 본질주의자

발행이 權正生 (시중공파 화천군계 36세 慶秀) 제2편

“죽으면 아픈 것도 슬픈 것도 외로운 것도 끝이다. 웃는 것도 화내는 것도. 그러니 웅감하게 죽겠다. 만약에 죽은 뒤 다시 환생할 수 있다면 건강한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 태어나서 25살 때 22살이나 23살쯤 되는 아가씨와 연애를 하고 싶다. 발벌 떨지 않고 잘할 것이다.”



그는 거둬지는 삶(부활)을 진정으로 믿었다고는 볼수 없으나, 그는 사물의 본질을 보는 시각(그것은 천진한 어린이의 눈)을 가지고 본질의 변화가 투쟁의 목표였음을 알수있다. 그것이 곧 부활이다.

발행이는 ‘달을 보고 비는 언덕’ 이라니 그의 마지막 땀가름이 뿌려진 곳이고, 그의 작품이 탄생한 진정한 안식의 터이다. 그 아래 그의 작은 집이 있다.

그는 아침마다 뒷산 자락을 산책했다. 아마도 그는 산책길에서도 籟를 칠 때처럼 불쌍한 이웃들의 소원이 허투빨리 이뤄지길 빌었을 것이다. 그것은 그가 정호경 신부에게 보내는 유서의 끝자락에도 나타난다.

「모두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하느님께 기도해 주세요. 제발 이 세상 너무도 아름다운 세상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은 없게 해 달라고요. 재작년 어린이날 몇 자 적어 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제 예금통장 다 정리되면 나머지는 북측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보내 주세요. 제발 그만 싸우고, 그만 미워하고 따뜻하게 통일이 되어 함께 살도록 해 주십시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티벳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기도 많이 해 주세요... 그는 압제자에 대한 본능적 거부감을 가지고 이에 대해 적극 투쟁한 사람을 존경하고 믿었다. 그 중 한 분이 안동 카톨릭농민회 투쟁의 실천자 정호경 신부이다.

자본주의가 결국 賤民을 양산하였고 그런 저질적 사고체계가 이 땅을 다시 파괴

물들이려는 지금 권정생의 신선한 목소리가 더욱 그리운 것이다. 한홍구(현대사학자)의 말처럼 공포와 욕망의 정치시대에 권정생의 동화책마저도 금서로 묶였으니 그것은 곧 본질(법칙,원리)을 어기는 자는 성공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망하는 모순을 의미한다. 그러한 시대가 이제 종말을 고하려는 이즈음 그는 천진한 미소로 내려다 보고 있을까?

그는 하잘 것 없는 더러운(?) ‘갸이똥’의 본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진리에 충실한 삶이 무엇인가를 그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압박 속에서도 여유와 관조의 마음으로 몸소 실천한 사람이다.

그가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마지막을 말했던 정호경의 기도가 곧 그의 생각과 같을 것이다.

“주님! ... 권력자들은/ 입으로는 백성과 정의를 들먹이지만/ 속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폭력을 일삼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보면/ 바탕부터 싸수가 노랬을 게 틀림없습니다./ ... 건의든 충고든 백성의 바른 소리는 전혀 듣지 않습



민중의 생명력을 글로 쓴 권정생의 10주기

니다. 귀에 거슬리는 바른 소리를 들으면 독사처럼 공격합니다.”

“정의의 주님! ... 불의한 권력자들의 독이빨을/ 뿌러뜨려 주십시오. ... 땀벌에 쪼이는 얼음이나 달팽이처럼 그들이 깡그리 녹아 없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런 정호경도 카톨릭이라는 진영논리에 의해서 권정생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사랑의 의혹을 ‘간과’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유족의 주장도 있다.

그리고 권정생의 참뜻이 ‘제도화된 기구’에 의해 ‘형식화’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는 그저 타협하고 바보처럼 웃는 천진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투쟁하는 본질주의자>인 그는 그의 남겨진 정신적 물질적 유산이 ‘궁핍과 구원’이라는 본질에 충실하게 쓰여지기를 바랄 것이기 때문이다. <계속> 글·권경민

◆ 지금 권정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유족의 제보가 있어 대종회 차원의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外權氏列傳 II

안동권씨 외손자 성호 이익<1>

성호 이익(1681-1763)은 안동권씨의 외손자이다. 부친 이하진이 귀양 가 있던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다. 어머니는 안동권씨로 권대후(權大後)의 따님이시다. 부친은 숙종 때(1680) 납인에서 서인으로 집권세력이 바뀌었던 이른바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진부목사로 좌천되었다가 마침내 평안도 운산으로 유배되었다. 부친은 그곳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55세였다.



성호는 부친이 돌아가시자 경기도 안산 성촌(당시는 광주 침성리)으로 돌아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다. 몸이 허약하고 병까지 많아 어머니가 항상 약주머니를 가지고 다니며 돌보았다고 한다. 어쩌나 병약했던지 10살이 되어서야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 성호는 편모 슬하에서 자랐으나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다. 특히 둘째형 이잠에게서 글을 배웠는데 둘째형이 장희빈을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장살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을 계기로 세상에 나가지 않고 일평생 침성리에서 칩거하였다. 외동아들이자 뛰어난 경세가였던 이맹휴도 일찍 세상을 뜨고 며느리마저 성호 앞에서 세상을 등져 가정적으로는 매우 비참하였다.

성호 집안은 본관이 여흥 이씨이나 정릉 이씨라고 부를 정도로 지금의 서울 정동(眞洞)에서 세거하였다. 그러나 성호는 그곳을 가끔 찾아가기는 했어도 거주한 적은 없다. 여행이나 친척을 방문하는 때가 아니면 안산 침성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곳에서 평생 수많은 제자를 길러낸 뒤 83세에 세상을 떠났다. 순암 안정복, 소남 윤동규, 하빈 신후담, 녹암 권철신 등 제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학문을 논했던 곳이 바로 거기다. 자신의 학문을 계승한 아들 이맹휴, 손자 이구환은 물론 조카 이병휴, 이용휴, 종손들이 이구환, 이삼환 등 가학을 이은 학자들이 항상 모여 토론하고 실학의 논리를 익혔던 곳 역시 그곳이다.

생전에 학자에게 내리는 선공감 가감역(假監役)이라는 벼슬을 내렸건만 성호는 벼슬에 응하지 않았다. 조선의 5대 명재상으로 유명한 변암 채제공은 단 한 차례 성호장모로 성호선생을 찾아 빈 적이 있다. 경기관찰사의 직책으로 그 지역을 순방하다가 침성리에 은거하고 있는 성호를 방문했노라는 기록이다. 성호 사후에 다산 정약용도 22세에 그곳을 찾은 적이 있다. 묘소 앞에는 영의정 채제공이 지은 묘갈명이 세워진 바 하나가 서 있다.

도를 안고서도 혜택을 가지지 못했으니 한세대의 불행이로다 抱道而莫能致澤 一世之不幸 책을 지술해 아름다운 혜택이 넘쳐났으니 백세의 다행이로다 著書而亦足嘉惠 百世之幸 하늘의 뜻은 아마도 거기에 있었지 않을가 한 세대가 짧지만 백세는 길도다 天之意無乃在是歟 一世短而百世永 선생의 명문을 지으며 우리 후학들에게 권면하노니 왜 선생의 저서를 읽지 않으려 하나 銘先生而勉吾黨 盡與讀先生書 학통을 전해가는 일 자체가 해야지 남이 해줄 것인가 傳統由己而由人乎

그 많은 제자를 길러냈던 옛집은 흔적조차 없지만 저서를 통한 성호의 혜택이 백세도록 영원하리라는 채제공의 글은 성호의 학문적 위상을 보여준다 하겠다. 성호는 실학의 비조 반계 유형원(1622-1673)의 학문에 큰 영향을 받았다. 성호는 “나라가 세워진 뒤로 시무를 알았던 분을 꼽아본다면 울곡 이이와 반계 유형원 두 분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며 반계의 학문을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성호의 학문과 사상을 이어받아 실학을 집대성했다. 위당 정인보는 조선후기의 3대 학자로 반계 유형원, 성호 이익, 다산 정약용을 꼽으며 일조(一祖)는 반계, 이조(二祖)는 성호, 삼조(三祖)는 다산이라고 주장하여 실학사상의 계승에 따른 학맥을 정리했다. <계속> 글 권형완

■ 사자성어

남아지사 장부지명 자고여시 (男兒之事 丈夫之命 自古如是)

“남아의 일과 장부의 운명은 옛부터 이와 같은 것이니(절대로 심려하지 말라).”

男兒之事 丈夫之命 自古如是

顏真卿 書

사나아 한목숨 이렇게 버리는 것이正道이다. 이것이 우리 권문의 전통이며 자랑이다. 오늘날 구차하게 변절과 일구어언을 일삼는 무리들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하다.

권징(權徵) (부정공파, 원종공신명마복평사)이 이시세의 난(세조 13년, 1467년)을 평정하고자 출정했다가 패배하면서 죽음에 이르러 혈서로 써서 노복에게 전해준 것이다.

임금에게 4배, 고향에 2배 후 순절(자결)한다. 이 혈서를 쓴날을 기일로 하여 제사를 ‘불천위’로 지내고 있다.

공교롭게도 부정공파를 파멸시킨 수양대군(세조)을 위해 죽은 것이니 아이

로니컬 하긴 하지만, 그 무인으로서의 충절은 가사하기 이를 때 없다. 안동시 풍산을 막곡리 청석골에 의관을 묻었다.

호는 등암(藤巖)이고 修義副衛 可後의 자이다. 그의 후손은 대대로 과신(科臣)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리고 또 한사람의 권징 (權徵, 1538. 중종 33~1588. 선조 31)이 있으니 조선 선조 때 문신. 자는 이원(而遠), 호는 송암(松菴), 시호는 충정(忠正), 본관은 안동(安東). 광(皞)의 아들. 1562년(명종 17) 문과에 급제, 한림(翰林)에 있을 때 직필(直筆)로 급지하지 않았고, 임란 공신이며, 성삼시 수정구에 묘가 있다.

안동권씨 충청북도 종친회 임원명단

존경하는 100만 족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청북도 도종친회는 오래 전부터 결성되었으나 활동이 다소 부진하다가 2015년 3월 1일 재결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년 1회 정기총회와 수시로 임시회의와 지역방문으로 족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도종친회장과 충청북도 내 시,군 지역회장과 청년회장, 장년회장 등 13명의 부회장을 두고 감사2명, 고문9명, 운영위원 33명, 사무처장 1명 총 59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 회 장 권태호(전검사장)

고 문 권희필, 권영수, 권식만, 권영주, 권혁풍, 권오술, 권영철, 권순정, 권영환

수석부회장 권기택

부 회 장 권태연, 권성업, 권오섭, 권영복, 권병택, 권중영, 권영국, 권오협, 권광택, 권태정, 권영재, 권봉섭

감 사 권후중, 권영배

사 무 처 장 권혁만

운 영 위 원 권청자, 권기태, 권오협, 권성유, 권기수, 권경상, 권오형, 권순성, 권영오, 권혁용, 권성택, 권혁희, 권성부, 권영식, 권태우, 권우중, 권혁중, 권혁봉, 권태복, 권오경, 권오석, 권영정, 권혁조, 권오창, 권혁봉, 권정욱, 권오영, 권오선, 권오승, 권병도, 권영갑, 권용남, 권 수

지역종친회장 청주회장 권기택, 제천회장 권태연, 증평회장 권성업, 진천회장 권오섭, 괴산회장 권영복, 음성회장 권병택, 보은회장 권중영, 옥천회장 권영국, 충주회장 권오협, 영동회장 권영재, 단양회장 권봉섭

장 년 회 장 권광택(청주)

청 년 회 장 권태정(청주)

